

# 6월 인구 겨우 1000명 늘어...출산·혼인 또 역대최소

### 통계청 6월 인구동향 발표...출생아 2만4051명, 3년7개월째 감소세

### 2분기 합계출산율 0.91명...사망자 역대최다 · 인구증가 고작 1050명

6월 출생과 혼인이 동반 감소하며 또다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혼인 감소에 따른 출산 감소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2분기 출생·혼인 건수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6월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로 집계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1050명에 그쳤다. 이 역시 동월 기준 가장 적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4051명으로 전년 동월(2만6357명) 대비 2306명(8.7%) 감소했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올해 6월에도 출산이 줄어들면서

출생아 수는 3년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소 기록은 3년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올해 상반기(1~6월) 누계치로도 15만8524명에 그쳤다. 동시기역대 최소치다. 분기별로 보면 2분기 출생아는 7만5448명으로 전년 동분기(8만2040명) 대비 8.0% 줄었다. 이 역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0.91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전년 동기 대비 0.07명 감소하며 동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인구 1000명당 연령별 출산율은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올해 2분기 25~29세 및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각각 34.8명, 8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명씩 감소했다. 35~39세 출산율도 44.3명으로 2.1명 줄었다. 24세 이하 여성의 출산율은 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명 감소했다.

결혼 연령대가 상승한 탓에 40세 이상에서는 출산율(3.2명)이 전년 동기보다 0.1명 늘어났다.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지만 혼인 또한 동반 감소하면서 앞으로의 출산 전망도 밝지 않다.

6월 혼인 건수는 1만7946건으로 전년 동월(2만610건) 대비 2664건(12.9%) 줄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분기별로도 올해 2분기 혼인 건수는 6만102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9건(7.8%) 감소하며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남녀 일반혼인율(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남성이 11.0건, 여성이 10.9건으로 모두 전년 동기

보다 1.0건, 0.9건 감소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어났다.

6월 사망자 수는 2만3001명으로 전년 동월(2만2608명) 대비 393명(1.7%) 증가하며 동월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2분기 사망자 수도 7만5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6명(1.4%) 늘었다. 동분기 기준으로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인구 1000명당 조사망률도 5.6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1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6월 인구 자연증가는 1050명에 그쳤다. 이 또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율도 0.2명으로 역대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편 이혼 건수는 6월 기준 868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건(1.0%) 증가했다. 2분기 이혼 건수도 2만80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늘어나야 출생아 수도 영향을 받는데 연간으로 보면 혼인이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혼인건수가 늘어나지 않아 당분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유지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1



“추석 앞두고 전통주 선보입니다” 28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전통주를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주 전문 매장 우리 술방에서 '이상현 소주'와 '우리 술방 둘다 잔세트'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 직장인 5명 중 1명 “추석 연휴 국내로 여행”...日 35%→8% 급감

### 추석 연휴 길지 않아 대부분 1박 2일 · 당일치기

직장인 5명 중 1명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여행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길지 않은 연휴 탓에 응답자 대부분은 여행지로 국내를 꼽았다.

사람인과 여가어때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257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4%가 '여행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행은 주로 '가족(57.4%)'과 함께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인(18.8%) △친구(12.7%) △혼자(9%) 순이었다.

여행지는 10명 중 8명(84.1%)이 '국내여행'을 답해, 해외여행(15.9%)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이전 설이나 추석 연휴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가까운 국내 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행을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행지로 △경기도(18.1%) △경상남도(15.1%) △강원도(14.8%) △경상북도(10.1%) △서울(9.3%) △전라남도(8.3%) △전라북도(6.3%) △제주도(5.8%) 순이었다.

올 추석 연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1박 2일(40.5%)' 또는 '당

일치기(28.4%)', '2박 3일(23.6%)' 등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했다.

예산 경비는 평균 44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40만원 미만(33.4%) △40~60만원 미만(24.6%) △20만원 미만(23.6%) △60~80만원 미만(8.5%)이었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동남아(37.3%) △홍콩·대만·마카오(20%) △중국(8%) △일본(8%) 등으로 가까운 나라 위주였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여름 휴가까지 1위였던 일본(35.2%)이 지리적 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27.2%p 급감한 8%를 기록했다. 일본 경제 회복에 따른 우리 국민의 일본 볼때 운동의



여파를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상반기 창업기업 64만개 전년비 7.1% ↓...‘불황’ 부동산업 급감

### 중기부 창업기업 동향 발표...개인창업 8.1% 감소

올 상반기 창업기업이 64만 개로 집계됐다. 법인기업은 소폭 증가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기업 창업이 위축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창업기업 숫자가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창업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64만2488개를 기록했다. 6월 창업기업은 9만8956개로 전년 동월 대비 5523개(5.3%) 감소했다.

상반기 법인 창업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5만4519개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기간 개인 창업기업은 8.1% 감소한 58만7969개에 그쳤다. 6월 개인창업 기업은 9만6166개로 전년 동월 대비 6.0% 줄었다.

업종별은 도·소매업이 16만9479개로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업 12만6431개(19.7%) △숙

박·음식점업 9만3753개(14.6%) △건설업 3만4945개(5.4%) △운수·창고업 3만2583개(5.1%) △개인서비스업 3만111개(4.7%) 순이었다.

상반기 도·소매업(1만201개 ↑)과 사업시설관리(4083개 ↑) 창업은 증가했지만 부동산업(6만1398개 ↓)과 전기·가스·공기(4289개 ↓) 업종 창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창업기업 숫자가 줄었다. 다만 기술기반업종 창업은 11만3482개로 전년 동기 대비 5.5%(588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